

# 비유로 소통하고 상상력으로 창조하라

◎ 강진규 (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부 교수, 영화평론가, OMCA 운영위원)

## 비유-지혜의 언어

파리의 미라보 다리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한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를 맞추어 한 푼 달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지라 그는 '앞을 못 보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적혀있는 쪽발을 자신의 목에 걸고 있었다.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한 시인이 그 거지를 보고 다가가서 물었다.

"여보시오 가지 양반, 사람들이 착선을 잘 하니까?"  
 "웬걸요, 오늘 하루 종일 앉아있었는데 앞에 있는 동전 몇 개가 다인걸요."  
 쪽발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시인은 쪽발을 뒤집어 몇 자 적은 뒤 이대로 두라는 당부의 말을 남긴 채 자신의 길을 재촉했다. 며칠 후 시인은 다시 미라보 다리의 거지에게 다가가 물었다.  
 "요즘은 빛이 어때요?"  
 그를 알아본 거지는 매우 기뻐하며 대답했다.  
 "선생님이 뭐라 쓰셨는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저에게 동전을 잘 주는 걸요!"  
 시인은 빙긋이 웃으며 가던 길을 갔고, 거지의 목에 걸린 쪽발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잔란히 붉은 오고 있건만,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 상상력-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

홍세화 씨의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에는 프랑스에 사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 하나가 기록되어 있다.  
 오래전 프랑스에서 국제 아동극팀대회가 열렸을 때의 일이다. 한국에서도 전국대회를 거쳐 그림을 제일 잘 그리는 학생을 선발해서 이 대회에 참가시켰다.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에서 미술대회는 대개 고공이나 공원에서 열리는 것이 보통이고, 그림의 내용 또한 눈앞의 사물을 그리는 일이 대부분인지라 한국 학생은 이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회가 열린 대회장은 뜻밖에도 어느 큰 강당이였다. 처음에는 석고 태생을 하려나보다 생각했지만 석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고, 대

신 음악 소리만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한국 학생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옆에 있는 프랑스 학생들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이 한국 학생은 붓에 손도 대지 못한 채 대회를 좌를 나오면서 영영 올랐다는 얘기가. 그 학생은 드뷔시의 음악을 들으면서 그 느낌을 표현하라는 그림대회의 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 훌륭한 창작자의 공통점-비유와 상상력의 결합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국열차>는 프랑스 민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지만, 봉 감독의 뛰어난 상상력과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가 비유를 통해 빛을 발하는 화제작이다. 그는 일찍이 <괴물>(2006)을 통해 미군의 득극물 한강방류사건에서 기형적 괴물을 탄생시키면서 현대 한국사회를 풍자했던 경험도 있는데, 그것은 <살국열차>에도 고스란히 살아있다. 봉 감독이 한국영화 최다관객(1301만 명) 동원의 기록을 가진 장본인이면서, 비유와 상상력을 통해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우리는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비유는 세속적인 사회에서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문화 소통의 방법이며, 상상력이라는 문화창조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문화적 소통으로서 비유와 상상력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좋은 예가 성경에 나와 있다. 마태복음 13장에 실린 천국에 관한 각종 비유가 그것이다. 예를 들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당시 사람들의 일상적 문화를 비유에 사용함으로써 상상력을 발휘하게 만들고 끝내는 제자들의 이해를 촉진시키는데 성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마 13:51). 비유가 불러일으키는 상상력은 신앙을 역동적으로 만든다. 개럿 그린(Garrett Green)은 일찍이 자신의 저서인 '하나님 상상하기'(Imagining God: Theology and the Religious Imagination)에서 신앙에 있어 상상력의 역할과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가 말하는 종교적 상상력이란 하나님을 '형상화' 하는 것(하나님에 대한 어떤 종류의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

님을 상상하는 것(어떤 페러다임에 따라서 하나님을 생 각하는 것이다. 여기서 페러다임적 상상이란 想象(嚮)적이 아니라 유비(類比, analogy)적이다.<sup>1)</sup>

현대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영화를 만든다면 성경 의 진리가 유비적 관계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페러다 임적 상상이 매우 유효할 것이다.

### 판타지의 상상력에 대한 새로운 평가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꼽히는 C.S. 루이스 는 자신의 어린 조카를 위해 '나니아 연대기'라는 연작 동화를 썼다. 전체 7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네 명의 어 린이들이 나니아 왕국을 여행하는 모험물 형식의 판타 지 동화다. 이 동화에는 마법의 옷장이 등장하고 마녀 와 사자 그리고 반인반수(半人半獸)의 각종 신기한 존 재들이 등장한다. 마녀와 마법이 등장한다고 해서 거부 감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는 그것을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적 접근 방법 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마

법이란 상상의 세계를 열어주는 문고리외도 같은 것이 며, 마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은유하는 아슬란이란 사자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 때문이다. 그 문을 여는 순 간부터 아이들은 마법의 신비함에 끌리기보다는, 루이 스의 용어를 빌리자면 '더 큰 마법이 있음을 깨닫게 된 다. 그것은 바로 창세 진부터 있었던 하나님과 하나님 의 의지이다. 루이스의 이 동화를 읽은 아이들은 재미 있고 좋은 이야기를 제공받을 뿐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 를 비유로 전해 듣는다.

1) Green, G (1989). *Imagining God: Theology and the Religious Imagination*. 강경철 역(1997) 하나님 상상하기. 서울: 장로교출판사, 14쪽



판타지는 현실 세계를 넘어서서 상상의 세계를 창조하 는 허구의 예술이다. 그러나 결코 나타난 모양만 허 구일 뿐, 판타지는 현실적 인간의 삶과 세상에 대한 진 실이나 소망의 또 다른 표현이다. 교회가 흔히 판타지 에 대해 비판하는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 처럼 묘사하여 관객을 현혹시킨다는 것인데, 현실이 중 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상상력의 결과로 나타 난 허구 그 자체를 경원시킬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상 상력은 진실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가만히 우리 주위를 살펴보자, 어린이들이 이 남편과 아내와 자식의 역할을 정하고, 풀잎과 흙으 로 밥을 짓고 반찬을 삼아 소꿉놀이를 하며 노는 모습 을 보기가 어렵지 않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만드는 것 이 바로 상상력에 힘입은 것이며, 그 안에는 집안에서 보아왔던 가족의 현실을 모방하고 나름대로 재창조하 는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 이 이 세상에서 만든 물건들은 모두 두 번 창조된 것들 이다. 첫 번째는 제작자의 머릿속에서 아이디어 형태로 한번 만들어지며, 두 번째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실 물로 재현된다. 이때 머릿속에서 구상된 것은 상상의 영 역에 존재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실물로만 들어질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상상이 창조로 가는 때 우 중요한 길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 거룩한 상상력이 권이다

상상력은 인간과 동물은 구분하는 명백한 증거다. 다 시 한 번 강조하지만 상상이란 자신 앞에 드러나지 않 은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에 따라 반응할 수 있는 기능이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 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 한 상상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바 로 이 때문에 무신론자들은 기독교가 있지 않은 신을 믿는 허구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을 생각하는 거룩한 상상이 현실적인 삶에서 창조적으 로 실현되는 것을 확인하며 살아간다. 즉, 상상력은 하 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고유의 기능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고 말할 수 있다. <만지의 제왕>의 원작자인 톨킨은 이 렇게 말한다. '판타지란 가장 높고 순수한 형태며, 예 술과 신학과 인간의 기본 욕망이 만나고 교차하는 장이 다.' 또한 그는 '판타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대 면할 수 있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상상력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의 총체적 타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상력에 서 말미암은 그 모든 것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의지 중이나 의부중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잘못된 상상의 결 과로 나타난 것이며, 가정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이라 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상상력 또한 예수 그리스 도에 의해 기쁨난 사람이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실 행할 때 거룩한 상상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법이다. 기독교세계관과 거룩한 상상력,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창조하는 열쇠라 할 수 있다.



강진구 고신대 컴퓨터영상학과 교수이며 영화평론가이다. SAC문화연구소장 기독교미디어커뮤니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중언론과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문화사역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